

# 국내 패션과 네일아트 트렌드의 비교

A comparative of both Domestic Fashion and Nail Art Trends

**주저자 : 박미희**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과 박사과정

**Park, Mi He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ept. of Fashion Industry

**공동저자 : 유태순**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Yoo, Tai So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ept. of Fashion Design

## 1. 서론

- 1.1. 연구목적
- 1.2. 연구방법

## 2. 이론적 배경

- 2.1. 패션 트렌드
- 2.2. 네일아트 트렌드

## 3. 패션 트렌드와 네일아트 트렌드 분석

- 3.1. 2007년~2009년 패션 트렌드
- 3.2. 2007년~2009년 네일아트 트렌드
- 3.3. 패션 트렌드와 네일아트 트렌드 비교

## 4.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미용 산업 중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패션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국내 네일아트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내 패션 트렌드와 네일아트 트렌드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패션 트렌드 분석을 위해 국내 대표 컬렉션인 서울 컬렉션을 선택하였으며 2007년 S/S~2009년 F/W까지 6시즌을 대상으로 5시즌 이상 참여한 디자이너 9인의 작품 745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네일아트 트렌드 분석을 위해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네일 전문 잡지 중 하나인 NAILPIA에 2007년~2009년에 수록된 작품 764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의 작품을 컬러, 패턴, 장식적 요소로 분류하여 분석 비교하였으며 연구의 객관적 검증을 위해 패션과 네일아트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컬러별 출현 빈도는 패션과 네일아트에서 공통적으로 N계열의 GRAY를 제외하고 거의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패턴은 공통적으로 플라워, 기하학, 도트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캐릭터나 일러스트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나타난 장식적 요소는 금속장식, 스팅글이었으며 소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국내 네일아트 트렌드와 패션 트렌드는 상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 주제어

트렌드, 네일아트 트렌드, 패션 트렌드

### Abstract

This research puts its purpose on trying to determine correlation of nail art trend and domestic fashion brand by analyzing trend of domestic nail art that is establishing itself as a part of fashion and developing at a fast speed in the beauty treatment industry.

Seoul Collections, the collections and more than representative collections in Korea, were selected to analyze fashion trends in this paper. 745 pieces from 9 designer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collections more than 5 seasons out of 6 seasons ranged from S/S 2007 to F/W 2009, were put to use to be analyzed. To assess nail art trends, 787 artworks from 2007 to 2009 which had been included in NAILPIA, one of the nail-specialized magazines published in Korea, were collected. Each piece was classified, assessed, and compared according to colors, patterns, and decorative features. 7 specialists of fashion and nail-art took part in questionnaire surveys to verify the study with objectiven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earch reveals that the frequency of colors in fashion and that of in nail-art have the frequency levels in common except for gray which belongs to N system. The patterns which fashion and nail-art had in common were the ones composed of flowers, geometric figures, stripes and dots. However, characters or illustrated ones were seldom seen in both fashion and nail art. The commonly used decorative elements both in fashion and in nail-art were metal ornaments and spangles. Moreover, there were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s of the decorative elements.

In conclusion, it was evident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nail-art and fashion trends in Korea.

### Keyword

trends, nail-art trends, fashion trends

## 1. 서론

### 1.1. 연구목적

신체의 장식이란 얼굴이나 머리 손톱을 치장하는 미용과 의복을 통해 차림새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인간의 외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김지희 외, 2006). 신체를 꾸미고 장식하는 행위는 고대로부터 인류가 행하여 온 본능적 행위임과 동시에 문화적 행위로써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능력은 오직 인간만이 가진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미용은 획일화 되어가는 현대 사회에 있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용의 발전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 및 아름다움에 관한 욕구가 상승(김경희 외, 2008)하였기 때문이며 각종 매스미디어의 발전은 이를 가속화 시켰다. 이에 미용 산업은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피부미용, 스킨아트 등으로 세분화 되었다(박은정, 2008). 이중 네일아트 분야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의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오늘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고소득 전문직(김도윤, 2009)이라는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손톱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은 젊음을 나타내는 상징의 척도(윤미선, 2009)이자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네일아트는 개인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이 네일아트 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네일아티스트들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네일아트 디자인 개발을 위해 국외 브랜드 세미나, 기술 세미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개되는 네일아트 디자인은 현지에서 유행하고 있거나 혹은 유행을 예감하는 네일아트 디자인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미나는 일부 특정 네일샵 원장, 혹은 강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될 뿐 다수의 네일아티스트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함에 있어 민첩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의 네일아티스트들은 국외의 네일 전문 잡지를 통해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작품이나 향후 네일아트의 트렌드에 대해 예측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그러나 국외 잡지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은 각 나라 문화나 정서, 그 나라 소비자의 성향 및 특색

등을 반영하여 완성된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나 환경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네일아트 트렌드는 패션 트렌드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의상 컬러나 디자인에 따라 네일아트 컬러나 디자인이 바뀌는 것을 그 예라 할 수 있다. 즉 네일아트 트렌드는 패션 트렌드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국외 패션트렌드와 국외 네일 트렌드를 비교한 이민지(2009)의 연구 밖에 없으며, 국내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전무하다. 국외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끊임없이 변하며 수많은 이미지 노출로 인해 빠른 유행 속도에 노출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용 산업 중 가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네일아트 산업의 발전과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빠른 유행 변화에 충족할 수 있는 네일아트 트렌드 예측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국내 패션 트렌드와 네일아트 트렌드를 각각 컬러, 패턴, 장식적 요소로 분석,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네일아티스트들에게는 국내 패션 트렌드를 통한 네일아트 트렌드를 예측 할 수 있는 안목과 다양한 디자인 창출 등으로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네일 제조업체에게는 마케팅에서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국내 네일아트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숙을 위한 인재 육성 및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국내 패션 컬렉션에 출품된 작품과 네일아트 전문잡지에 수록된 작품의 사진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패션 트렌드의 정의 및 속성과 네일아트 트렌드의 정의, 역사, 종류를 고찰하기 위해 단행본, 학위논문, 연속 간행물, 인터넷 웹 사이트 등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실증적 연구는 국내 패션 트렌드와 네일아트 트렌드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연속 간행물과 인터넷 웹 사이트 등을 이용하였으며 그 범위는 2007년 S/S부터 2009년 F/W까지 6시즌을 그 범위로 한정하였다.

국내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1990년 서울 패션아티스트 협회가 설립된 이래로 꾸준히 매년 2회 시즌별 트렌드 컬렉션을 열고 있는 SFAA(Seoul Fashion Artist Association) 컬렉션을 선정하였으며

작품 선정은 5시즌 이상 컬렉션에 출품한 디자이너 작품으로 남성복만을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를 제외한 9명의 디자이너 박현주, 안윤정, 이영희, 이주영, 임선옥, 조성경, 최창호, 홍은주, 황재복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이미지 자료는 컬렉션 작품을 클로즈업이 가능하여 패턴이나 장식적 요소를 정확히 볼 수 있는 <http://www.sfc.seoul.kr>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중 단체 컷이나 조명 등 기타 환경에 의해 작품이 잘 보이지 않는 이미지 컷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총 6시즌 745작품을 분석하였다.

네일아트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네일 전문잡지인 NAILPIA(한국네일협회, 2007, 2008, 2009, 2010)를 분석하였다. 국내에 네일 전문잡지로는 NAILPIA, NAILPRO, NAIL UP, NAILHOLIC 등이 있으나 NAILPRO, NAIL UP, NAILHOLIC 등은 본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범위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네일 전문잡지 중 가장 오랜 기간 발행되었으며 네일아티스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NAILPIA를 본 연구 자료로 선택하였다. NAILPIA는 매월 발행되며 3월~8월에 수록된 작품을 S/S시즌으로 9월~2월에 수록된 작품을 F/W로 분류하였다. 네일아트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므로 NAILPIA에 수록된 작품 중 네일아트 학원, 전문 샵에서 선보인 작품과 STREET NAIL에서 선보인 작품, 컬렉션 작품을 선정하였다. 인쇄 매체라는 특성상 잡지를 스캔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 자료의 색채가 다소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으며 저화질로 인해 분석이 힘든 작품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총 6시즌 787작품을 분석하였다.

패션과 네일아트에서 선정된 이미지 컷은 이민지(2009)와 이계정(2009)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시즌별로 컬러, 패턴, 장식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컬러는 멘셀표색계의 기본 색상인 5색상환 R(RED)계열, Y(YELLOW)계열, G(GREEN)계열, B(BLUE)계열, P(PURPLE)계열과 N(무채색)계열인 WHITE, GRAY, BLACK 총 8개의 컬러로 분류하였다. 패턴의 경우 모든 작품에서 나타나는 무늬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비슷한 계열은 묶어 분류하였다. 꽃이나 잎사귀, 나무 등의 모든 식물 패턴은 플라워 패턴으로 지브라, 호피 등의 모든 동물 패턴은 애니멀 패턴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플라워, 기하학, 스트라이프, 도트, 그라데이션, 체크, 애니멀, 일러스트, 캐릭터, 문자, 별·리본·하트로 총 11개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장식적 요소는 패션의 경우 기본 패브릭 외에 단추, 리본, 퍼 등을 포함

시켰으며 네일아트의 경우 핸드페인팅을 제외한 모든 장식을 장식적 요소로 하였으며 패턴과 마찬가지로 세분화되어 나타난 것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들로 묶어 분석하였다.

컬러의 경우 액세서리인 스타킹, 장갑, 신발, 모자 등을 제외한 컬러 중 30%이상을 차지하는 컬러를 모두 분석하였으며 패턴과 장식적 요소들도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복합적으로 나타남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들로 3가지까지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패션 트렌드와 네일아트 트렌드의 비교 연구를 위해 컬러 8개, 패턴, 11개, 장식적 요소 8개로 분석 요소별 변화 추이를 꺾은선형 그래프로 이용 비교하였다.

실증적 연구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패션을 전공한 전문가 2인, 1년 이상 네일아트 현장에서 근무 또는 강의를 하고 있는 네일아트 전문가 2인, 패션과 네일아트를 모두 전공한 전문가 3인 총 7인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집단 대상으로 2010년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14일 동안 국내 패션 트렌드와, 네일아트 트렌드 분석에 관한 조사 실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패션 트렌드

패션 트렌드의 개념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렌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트렌드의 일반적인 의미는 고대 영어의 트레단(Tredan)에서 비롯되어 중세에 이르러 트렌드(Trend)로 변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며 많은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인 의미로 차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트렌드를 ‘일반적인 움직임의 방향, 유력한 경향이나 대세, 일반적인 움직임, 현재의 스타일이나 선호도, 발전의 방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최유리, 2003).

트렌드의 정의는 지금까지 조금씩 그 의미가 확대되어 왔다.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방향 또는 어떤 방향으로 기울거나 구부러지는 경향을 말하던 트렌드는 여러 학문에서 활용되어지고 그 의미가 발전함에 따라 관념적인 방향이나 추세라는 의미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석에 의해 통계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적 움직임이라는 의미가 더 해졌다(이민지, 2009).

패션 트렌드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또 다른 의미

요소인 패션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면 패션은 라틴어의 팩티오(Factio)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명사로는 '유행', 동사로는 '유행하다', '창조하다'를 의미한다(박신희, 2000). Nystrom(1928)은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있어 많은 이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여기에서 스타일은 의복, 태도, 행동이나 기타 습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중세 영어로는 팩시움(Facioum)이었으며 현대에 와서 패션(Fashion)으로 되었다. 패션과 유사한 단어로는 영어로는 스타일(Style), 프랑스어로는 모드(Mode), 이탈리아어로는 모도(Modo)가 있으며 국제화 시대인 오늘날 패션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김민자, 1995).

패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양식 · 방식 · 형 · 유행 · 관습 · 습관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유행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분야는 복식이므로 복식의 유행을 지칭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삶의 질이 고도로 향상된 근래에 와서는 인간 생활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전유미, 2004). 패션은 개인적 의사 표시 이전에 사회적 표시이며 속성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기를 표현하며 변화나 새로움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관습을 따르고 모방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 개인과 사회 사이의 모순과 대립관계 속에 패션의 본질이 있다(최유리, 2003). 짐멜(George Simmel), 니스트롬(P.H Nysrtrom), 플루겔(J.C Flugel) 등의 많은 학자들도 패션의 개념에 대하여 정의하였는데 이들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패션이란, 일정한 사회에서 일정기간 내에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자극에 대하여 일으키는 반응으로서 사회적 동조행동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안병기, 2006). 즉 패션이란 '어떤 한 시기에 있어서 동시대의 사회를 상징하는 지배적 스타일의 사회적 전파 과정 혹은 이에 의한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안광호 외 2003) 이처럼 패션은 좁게는 복식 유행만을 뜻할 뿐 아니라 넓게는 동시대의 다수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상징적 스타일의 제품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패션과 트렌드의 개념을 종합하여 패션 트렌드의 의미를 정의해 보면 패션 트렌드란 패션의 경향과 트렌드가 반영된 패션 양식이나 생활 및 사회현상이다. 다시 말해 국내외의 사회정세와 인간의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제반 현상들이 용해되어 인간 생활을 주도해 나가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나타나는 패션 현상, 이것이 패션 트렌드이다(전유미, 2004).

또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패션트렌드는 패션의 경향을 의미하며, 패션이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 혹은 패션이 변화하고 있는 기본적인 흐름을 뜻한다. (안병기, 2006) 패션에 있어 보여 지는 움직임 방향과 다가올 시점에 널리 퍼질 스타일의 특성을 패션트렌드라 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향인 것이다(폴리 게이린, 1993).

시대적 · 사회적으로 소비자 감성과의 적합성 여부와 소비자의 반응시점에 따라 적어도 여섯 시즌 이상 긴 기간을 패션트렌드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롱-텀 트렌드'와 한·두 시즌 짧게 스치며 유행하는 '숏-텀 트렌드'로 분류할 수 있다(고희숙, 2004). 패션이 일반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이라면 패션 트렌드는 이와는 달리 과거, 현재, 미래의 연장선상에서 연속되는 일정한 경향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패션과 차이를 보인다.

## 2.2. 네일아트 트렌드

네일아트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네일을 패션의 한 분야인 미용으로 인식하는 등의 변화로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는 직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네일아트는 멋을 내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토탈 패션의 한 부분으로서 타인에게 매력적인 호감을 주고 자신에게는 만족감을 부여해 주는 미용 패션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자리 매김 되고 있다(송미영, 2000).

네일(Nail)이란 '못을 박다. 정을 박다'라는 사전적 의미와 '손·발톱'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며, 의학 용어로는 오닉스(Onyx)라고도 한다(박은주, 2009). 오늘날 네일아트는 손톱화장, 손톱치장, 손톱관리, 매니큐어 등으로 다양하게 칭해지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매니큐어이다. 매니큐어란 말은 장식화된 것처럼 손톱에 색을 칠하는 것, 혹은 사용하는 제품의 명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의 관리를 의미한다(장석임, 2001; 이미선, 2005). 매니큐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에서 손을 뜻하는 마누스(Manus)와 관리를 뜻하는 큐라(Cura)의 합성어로 네일의 모양 정리, 큐티클(Cuticle)정리, 손 마사지, 컬러링(Coloring)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손의 관리를 뜻한다(송원길, 2007).

네일아트 트렌드란 네일(Nail)과 트렌드(Trand)의 합성어로서 '네일의 경향'을 의미한다(이계정, 2009).

네일아트 트렌드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속성을 기본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대, 문화,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여 손톱 위를 장식하는 것으로 손톱의 건강과 기능을 우선으로 다양한 재료와 컬러, 모양이나 길이를 이용해 손톱을 더욱 아름답고 개성 있어 보이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적 흐름이다. 이는 일정한 시기에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 3. 패션 트렌드와 네일아트 트렌드 분석

#### 3.1. 2007년~2009년 패션 트렌드

##### 3.1.1. 컬러

2007년 S/S 시즌의 컬러는 총 14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N계열인 WHITE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LACK 18.3%, Y계열 14.4%, R계열 9.9%, N계열인 GRAY 7.8%, B계열 7.3%, G계열 4.9%, P계열 3.8%로 나타났으며 2007년 F/W 시즌의 컬러는 총 144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N계열인 BLACK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WHITE 14.3%, GRAY 13.5%, R계열 10.2%, B계열 8.6%, Y계열 8.4%, G계열 3.8%, P계열 3.5%로 나타났다.

2008년 S/S 시즌의 컬러는 총 117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N계열인 WHITE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LACK 24.3%, GRAY 12.8%, R계열 11.6%, Y계열과 B계열 5.8%, G계열 4.5%, P계열 2.0%로 나타났으며 2008년 F/W 시즌의 컬러는 총 91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N계열인 BLACK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계열 22.1%, N계열 GRAY 15.7%, WHITE 12.2%, Y계열 11.0%, G계열 6.5%, P계열 3.4%, B계열 1.6%로 나타났다.

2009년 S/S 시즌의 컬러는 총 72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N계열인 BLACK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WHITE 17.4%, Y계열 13.5%, N계열인 GRAY 11.1%, R계열 9.4%, B계열 7.0%, G계열 5.6%, P계열 2.1%로 나타났으며 2009년 F/W 시즌의 컬러는 총 178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N계열의 BLACK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WHITE 16.3%, GRAY 10.9%, R계열 10.5%, G계열과 Y계열 8.4%, B계열 7.1%, P계열 4.9%로 나타났다.

##### 3.1.2. 패턴

2007년 S/S 시즌의 패턴은 총 14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스트라이프가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플라워 21.6%, 도트 11.5%, 별·리본·하트 10.3%, 기하학 10.1%, 체크 5.3%, 문자 4.6%, 애니멀 3.2%, 일러스트 1.4%, 그라데이션 0.9%, 캐릭터 0.0%로 나타났으며 2007년 F/W 시즌의 패턴은 총 144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스트라이프가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트 21.9%, 체크 18.0%, 플라워 13.8%, 기하학 12.4%, 별·리본·하트 5.1%, 애니멀 2.1%, 문자 1.6%, 그라데이션 0.7%, 일러스트 0.2%, 캐릭터 0.0%로 나타났다.

2008년 S/S 시즌의 패턴은 총 117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기하학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트 19.3%, 플라워 16.1%, 체크 14.4%, 스트라이프 13.3%, 일러스트 3.2%, 별·리본·하트 5.2%, 문자 2.6%, 애니멀 1.8% 그라데이션, 1.2%, 캐릭터 0.0%로 나타났으며 2008년 F/W 시즌의 패턴은 총 91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플라워가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라이프 17.4%, 기하학 13.3%, 애니멀 12.1%, 체크 10.9%, 도트 8.8%, 문자 6.5%, 별·리본·하트 3.2%, 그라데이션 1.5%, 일러스트 0.3%, 캐릭터 0.0%로 나타났다.

2009년 S/S 시즌의 패턴은 총 72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기하학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플라워 24.7%, 체크 17.4%, 도트 9.5%, 스트라이프 6.8%, 문자 6.3%, 별·리본·하트 5.3%, 그라데이션 2.6%, 일러스트 1.1%, 애니멀, 캐릭터 0.0%로 나타났으며 2009년 F/W 시즌의 패턴은 총 178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플라워가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하학 22.0%, 스트라이프 15.0%, 체크 11.0%, 별·리본·하트 9.8%, 그라데이션 6.5%, 문자 6.4%, 도트 4.4%, 일러스트 0.2%, 애니멀과 캐릭터가 0.0%로 나타났다.

##### 3.1.3. 장식적 요소

2007년 S/S 시즌의 장식적 요소는 총 14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금속장식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레이스 25.8%, 리본 24.2%, 플라워 16.2%, 스팅글 5.5%, 큐빅 0.8%, 진주 0.2%, 퍼 0.0%로 나타났으며 2007년 F/W 시즌의 장식적 요소는 총 144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금속장식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리본 25.1%, 퍼 13.1%, 레이스 10.1%, 스팅글 9.6%, 플라워 4.4%, 큐빅 3.1%, 진주 1.3%로 나타났다.

2008년 S/S 시즌의 장식적 요소에서는 총 117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금속장식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리본 23.7%, 스팅글 16.5%, 레이스

16.3%, 큐빅 13.4%, 플라워 2.3%, 진주 0.3%, 퍼 0.0%로 나타났으며 2008년 F/W 시즌의 장식적 요소에서는 총 91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레이스가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리본 21.3%, 금속장식 16.9%, 플라워 13.8%, 퍼 10.6%, 스팅글 5.5%, 큐빅 3.9%, 진주 0.4%로 나타났다.

2009년 S/S 시즌의 장식적 요소는 총 72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리본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레이스 30.3%, 금속장식 23.4%, 스팅글 4.1%, 큐빅 2.8%, 진주 0.7%, 플라워, 퍼 0%로 나타났으며 2009년 F/W 시즌의 장식적 요소는 총 178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금속장식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리본 19.2%, 레이스 12.7%, 플라워 11.9%, 퍼 11.6%, 스팅글 7.8%, 큐빅 4.7%, 진주 1.9%로 나타났다.

## 3.2. 2007년~2009년 네일아트 트렌드

### 3.2.1. 컬러

2007년 S/S 시즌의 컬러는 총 14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N계열의 WHITE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계열 19.2%, N계열의 BLACK 16.2%, Y계열, B계열 8.8%, G계열 7.5%, N계열의 GRAY 6.8%, P계열 4.2%로 나타났으며 2007년 F/W 시즌의 컬러는 총 16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N계열의 WHITE가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BLACK 19.9%, R계열 18.1%, Y계열 9.1%, B계열 8.5%, N계열의 GRAY 6.3%, G계열 6.0%, P계열 4.5%로 나타났다.

2008년 S/S 시즌의 컬러는 총 157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N계열의 WHITE가 2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계열 20.6%, N계열의 BLACK 16.9%, Y계열 12.5%, B계열 8.8%, N계열의 GRAY, G계열 6.3%, P계열 3.1%로 나타났으며 2008년 F/W 시즌의 컬러는 총 34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N계열의 BLACK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계열 19.1%, N계열 GRAY 16.2%, WHITE, Y계열 10.3%, B계열 7.4%, G계열 4.4%, P계열 1.5%로 나타났다.

2009년 S/S 시즌 컬러는 총 9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R계열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계열 WHITE 20.0%, BLACK 15.3%, Y계열 12.1%, B계열 11.6%, G계열 7.4%, P계열 7.0%, N계열 GRAY 5.6%로 나타났으며 2009년 F/W 시즌 컬러는 총 197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N계열의 BLACK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WHITE, R계열 20.2%, Y계열 11.8%, N계열 GRAY 8.4%, B계열

6.4%, P계열 6.2%, G계열 4.2%로 나타났다.

### 3.2.2. 패턴

2007년 S/S 시즌 패턴 총 14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플라워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하학 26.9%, 그라데이션 16.6%, 스트라이프 8.3%, 체크 5.5%, 도트, 애니멀 3.4%, 일러스트 1.4%, 문자, 캐릭터, 별·리본·하트 0.7%로 나타났으며 2007년 F/W 시즌 패턴 총 16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기하학이 26.3%, 플라워 22.9%, 그라데이션 18.4%, 스트라이프 8.4%, 도트, 애니멀, 체크 6.1%, 별·리본·하트 2.8%, 문자 1.7%, 일러스트 1.1%, 캐릭터 0.0%로 나타났다.

2008년 S/S 시즌의 패턴 총 157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기하학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플라워 23.2%, 그라데이션 15.1%, 도트 13.5%, 별·리본·하트 8.1%, 스트라이프 6.5%, 애니멀 2.7%, 체크 1.6%, 일러스트 1.1%, 캐릭터, 문자 0.5%로 나타났으며 2008년 F/W 시즌의 패턴 총 34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기하학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라데이션 19.4%, 애니멀 11.1%, 플라워, 도트 8.3%, 스트라이프, 체크 2.8%, 별·리본·하트, 문자, 일러스트, 캐릭터 0.0%로 나타났다.

2009년 S/S 시즌의 패턴 총 9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플라워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하학 20.0%, 그라데이션 13.0%, 애니멀 11.0%, 스트라이프 10.0%, 도트 7.0%, 별·리본·하트 6.0%, 체크 4.0%, 일러스트 3.0%, 캐릭터, 문자 1.0%로 나타났으며 2009년 F/W 시즌의 패턴 총 197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플라워가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라데이션, 기하학 16.7%, 체크 11.7%, 애니멀 8.6%, 별·리본·하트 7.8%, 스트라이프 6.2%, 도트 5.1%, 캐릭터 3.1%, 일러스트 2.3%, 문자 1.6%로 나타났다.

### 3.2.3. 장식적 요소

2007년 S/S 시즌의 장식적 요소는 총 14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큐빅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팅글 31.5%, 플라워 11.0%, 금속장식 6.8%, 진주 4.1%, 레이스 2.1%, 리본 0.7%, 퍼 0.0%로 나타났으며 2007년 F/W 시즌의 장식적 요소는 총 16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큐빅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팅글 38.5%, 금속장식 14.6%, 플라워 4.9%, 진주 0.5%, 리본, 레이스, 퍼 0.0%로 나타났다.

2008년 S/S 시즌의 장식적 요소는 총 157점의 작

품을 분석한 결과 큐빅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팅글 37.3%, 플라워 8.7%, 금속장식 6.2%, 진주 3.1%, 리본 1.2%, 레이스, 피 0.0%로 나타났으며 2008년 F/W 시즌의 장식적 요소는 총 35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스팅글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큐빅 31.6%, 플라워, 금속장식, 진주 2.6%, 리본, 레이스, 피, 0.0%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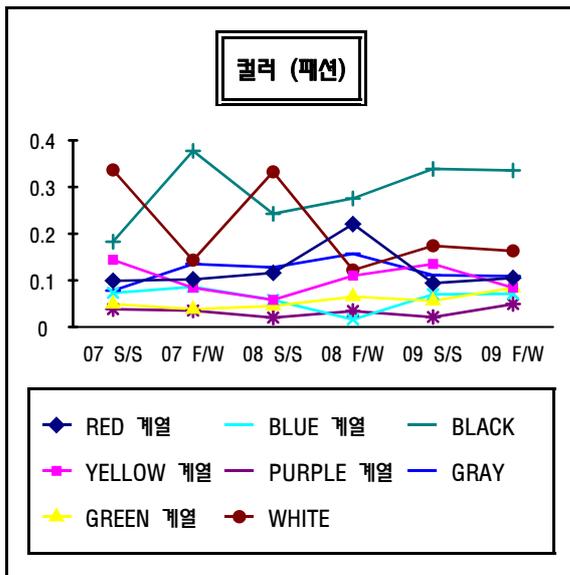
2009년 S/S 시즌의 장식적 요소는 총 93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큐빅이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팅글 25.4%, 금속장식 17.8%, 플라워 7.6%, 진주, 리본 1.7%, 레이스 0.8%, 피 0.0%로 나타났으며 2009년 F/W 시즌의 장식적 요소는 총 197점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큐빅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팅글 37.6%, 금속장식 13.2%, 플라워 6.8%, 진주 3.2%, 리본 0.4%, 레이스, 피 0.0%로 나타났다.

### 3.3. 패션 트렌드와 네일아트 트렌드 비교

#### 3.3.1. 컬러

시즌에 따른 패션과 네일아트 컬러 변화도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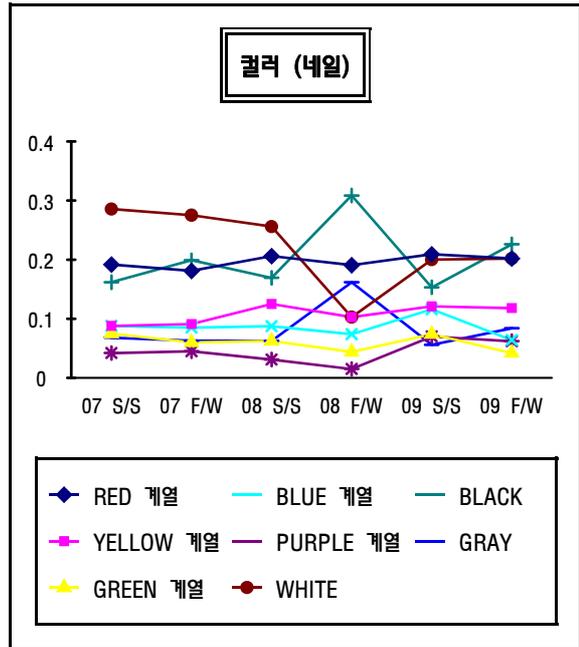
2007년 S/S ~ 2009 F/W 6시즌 패션 작품 745점을 분석결과 시즌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N계열인 WHITE, BLACK, GRAY가 가장 높았으며 R계열, Y계열, B계열, G계열, P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N계열 WHITE, BLACK, GRAY는 2007년 S/S에서는 59.8%, F/W에서는 65.6%, 2008년 S/S에서는 70.4%, F/W에서는 55.5%, 2009년 S/S에서는 62.4%, F/W



[그림 1] 시즌별 패션 컬러 현황 (07 S/S ~ 09 F/W)

에서는 60.8%로 매 시즌 50%이상 나타났다.

2007년 S/S ~ 2009 F/W 6시즌 네일아트 작품 787점을 분석한 결과 시즌별 차이는 있으나 N계열인 WHITE, R계열, BLACK, Y계열, B계열, N계열인 GRAY, G계열, P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N계열 WHITE, BLACK, GRAY는 2007년 S/S에서는 51.6%, F/W에서는 53.7%, 2008년 S/S에서는 48.8%, F/W에서는 57.4%, 2009년 S/S에서는 40.9%, F/W에서는 51.2%로 매 시즌 40%이상 나타났다.



[그림 2] 시즌별 네일아트 컬러 현황 (07 S/S ~ 09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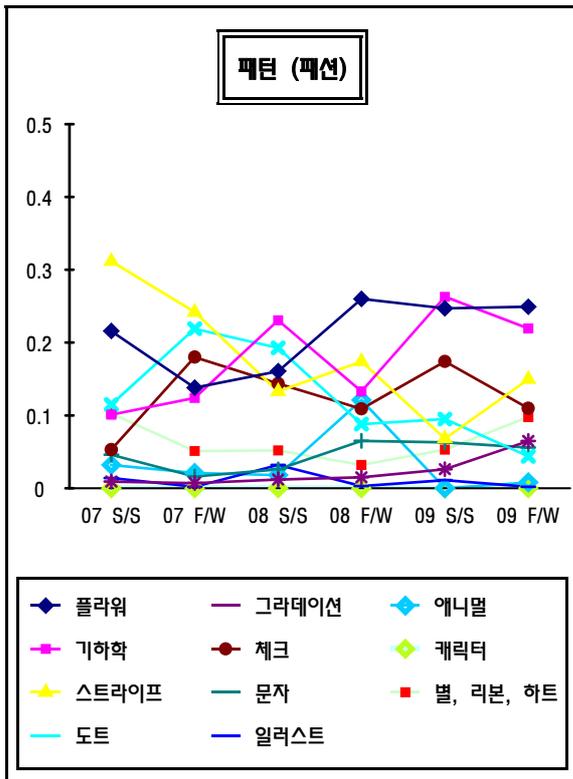
패션과 네일아트 컬러는 출현 빈도는 공통적으로 무채색인 N계열의 BLACK, WHITE와 유채색에서는 R계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Y계열, B계열, G계열, P계열 순이며 N계열의 GRAY는 높은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 3.3.2.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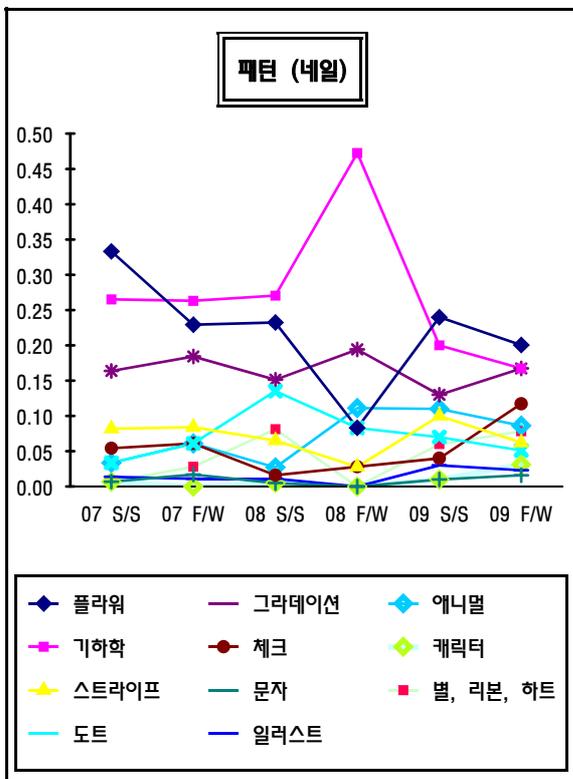
시즌에 따른 패션과 네일아트 패턴 변화도는 [그림 3] [그림 4]와 같다.

2007년 S/S ~ 2009 F/W 6시즌 패션 작품 745점을 분석한 결과 플라워는 21.2%, 기하학 17.9%, 스트라이프 18.0%, 도트 14.2%, 체크 12.8%, 별·리본·하트 6.5%, 문자 4.5%, 애니멀 3.2%, 그라데이션 2.2%, 일러스트 1.4%, 캐릭터 0.1%로 나타났다. 시즌별 차이는 있으나 플라워, 기하학, 스트라이프, 도트가 강세였으며 그라데이션, 캐릭터, 일러스트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시즌별 패션 패턴 현황 (07 S/S ~ 09 F/W)



[그림 4] 시즌별 네일아트 패턴 현황 (07 S/S ~ 09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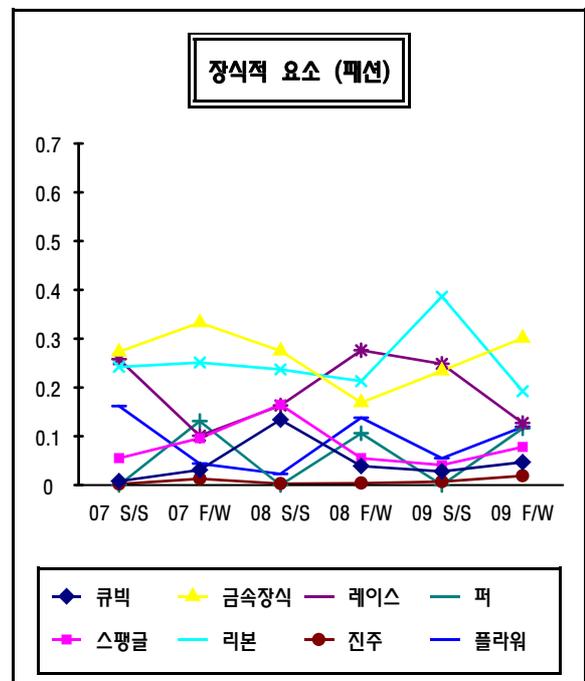
2007년 S/S ~ 2009 F/W 6시즌 네일아트 작품 787 점을 분석한 결과 기하학은 23.9%, 플라워 23.4%, 그라데이션 16.4%, 스트라이프 7.3%, 도트 7.1%, 애니멀 6.4%, 체크 6.3%, 별·리본·하트 5.0%, 일러스트 1.7%, 캐릭터 1.2%, 문자 1.1%로 나타났다. 시즌별 차이는 있으나 기하학, 플라워, 그라데이션이 강세였으며 캐릭터, 일러스트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과 네일아트 패턴 출현 빈도는 공통적으로 플라워, 기하학, 스트라이프, 문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캐릭터, 일러스트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3.3.3. 장식적 요소

시즌에 따른 패션과 네일아트 장식적 요소 변화도는 [그림 5]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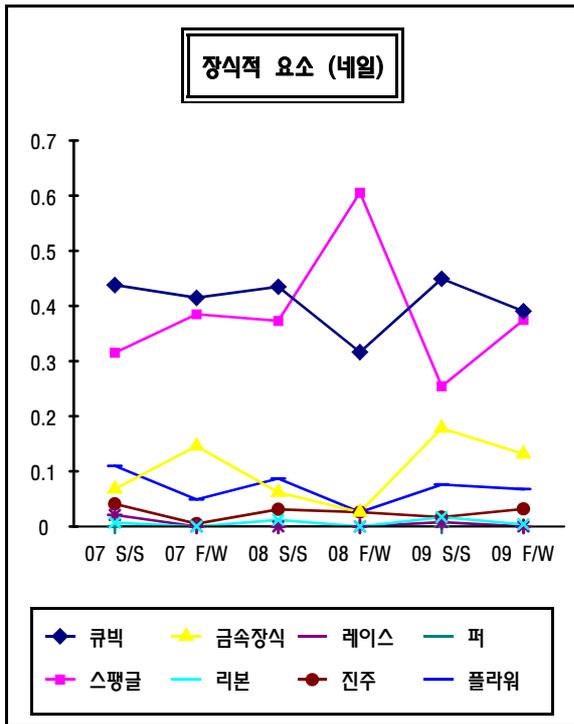
2007년 S/S ~ 2009 F/W 6시즌 패션 작품 745점을 분석 결과 금속장식 26.4%, 리본 25.4%, 레이스 20.5%, 플라워, 스팅글 8.1%, 퍼 5.9%, 큐빅 4.8%, 진주 0.8%로 나타났다. 시즌별 차이는 있으나 금속장식, 레이스, 리본, 플라워, 스팅글이 많이 나타났다. 퍼는 소재의 특성상 F/W 시즌에는 많이 나타났으나 S/S 시즌에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 시즌별 패션 장식적 요소 현황 (07 S/S ~ 09 F/W)

2007년 S/S~2009 F/W 6시즌 네일아트 작품을

787점을 분석한 결과 큐빅 41.6%, 스팅글 36.1%, 금속장식 11.4%, 플라워 7.3%, 진주 2.5%, 리본 0.7%, 레이스 0.4%, 퍼 0.0%로 나타났다. 시즌별 차이는 있으나 큐빅, 스팅글, 금속장식이 많이 나타났다. 레이스, 리본, 퍼는 네일아트 특성상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장식적 요소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레이스나 리본의 경우 팔리쉬, 아크릴 물감, 아크릴 파우더 등으로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시즌별 네일아트 장식적 요소 현황 (07 S/S ~ 09 F/W)

패션과 네일아트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장식적 요소는 금속장식, 스팅글 이었으며 소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4. 결론 및 제언

네일아트 산업은 꾸준히 발전해온 다른 미용 산업 분야에 비해 20세기에 들어 급속도로 성장한 산업이다. 네일아트를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네일아트 스타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으며 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한 분야가 네일아트 디자인이다. 우리는 이러한 네일아트 디자인이 패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같은 패턴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패션과 네일아트 트렌드 비교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국외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국내 자료를 이용한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컬렉션에 출품한 작품 745점과 네일아트 전문잡지인 NAILPIA에 수록된 작품 787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서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시즌에 따른 패션과 네일아트 컬러 변화를 비교한 결과 패션에서는 대체로 N계열인 WHITE>BLACK>GRAY>R계열>Y계열>B계열>G계열>P계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N계열은 매 시즌 50% 이상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네일아트에서는 N계열인 WHITE>R계열>BLACK>Y계열>B계열>G계열>P계열>GRAY순으로 나타났으며 N계열은 2008년 S/S와 2009년 S/S 시즌을 제외한 모든 시즌에서 50% 이상 나타났다. 패션과 네일아트에서 공통적으로 컬러별 출현 빈도가 N계열의 GRAY를 제외하고 거의 같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2. 시즌에 따른 패션과 네일아트 패턴 변화를 비교한 결과 패션에서는 매 시즌 스트라이프, 플라워, 기하학, 도트가 강세였으며 캐릭터, 일러스트, 그라데이션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네일아트에서는 기하학, 플라워, 그라데이션, 스트라이프, 도트가 강세였으며 캐릭터, 일러스트 등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과 네일아트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패턴은 플라워, 기하학, 스트라이프, 도트였으며 그 중 플라워는 20%이상, 기하학은 17%이상 나타났다. 그러나 캐릭터나 일러스트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3. 시즌에 따른 패션과 네일아트 장식적 요소 변화를 비교한 결과 패션에서는 금속장식, 레이스, 리본이 많이 나타났다. 퍼는 소재의 특성상 F/W 시즌에는 많이 나타났으나 S/S 시즌에는 나타나지 않아 시즌별 변화가 가장 큰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네일아트에서는 큐빅, 스팅글, 금속장식이 많이 나타났으나 레이스, 리본, 퍼는 네일아트 특성상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팔리쉬, 아크릴 물감, 아크릴 파우더 등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과 네일아트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장식적 요소는 금속장식, 스팅글 이었으며 소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패션 트렌드와 네일아트 트

트렌드가 함께 변화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많은 네일아티스트들이 패션 트렌드를 이용해 네일아트 트렌드를 유추함으로써 현대인들의 빠른 유행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네일아트 디자인을 선보여 매출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네일아트 제조업체에게는 제품 생산에 기초 자료가 되어 마케팅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내 네일아트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숙을 위한 인재 육성 및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는 패션 트렌드와 네일아트 트렌드 비교에 있어 한차례 전문가 집단에게 실시한 결과를 적용하여 비교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네일아트 자료 수집에 있어 NAILPIA가 월간 발행이기는 하나 출판사의 사정으로 2008년도 F/W 자료가 미흡하였다. 또한 인쇄 매체라는 특성상 스캔하는 과정에서 색채가 다소 변질 될 수도 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좀 더 구체적인 트렌드 비교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길거리 캐스팅 혹은 샵 등의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희숙. (2004). 국내외 패션트렌드 분석과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해외 패션트렌드 수용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 김주덕. (2009). 네일관리에 대한 인식 및 네일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6(1). 1-15
- 김도윤. (2009). 가치관과 매니큐어행동 및 네일샵 선택행동 간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자. (1995). 자연과 시원으로 희귀하는 반역의 패션. 민음사
- 김지희, 정윤희, 황윤정. (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 박신희. (2000). 1990년대 해외컬렉션과 국내 컬렉션의 패션 트렌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정. (2008). 네일샵 고객의 라이프스타일과 서비스 만족도에 따른 방문에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 (2009). 아르누보 양식을 응용한 네일아트 디자인 연구. 용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
- 서울패션센터. <http://www.sfdc.seoul.kr>
- 송미영. (2000). Nail Art.. 현문사
- 송원길. (2007). 네일아트의 표현기법과 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3(2). 173-179
- 안광호, 황선진, 정찬진. (2003). 패션마케팅. 수학사
- 안병기. (2006). 패션트렌드 정보기획론. 경춘사
- 윤미선. (2009). 매니큐어 문화 유형에 따른 치료와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계정. (2009). 네일아트 표현기법과 트렌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 (2005). 트렌드를 만드는 Nailart & Technic. 교학사
- 이민지. (2009). 패션과 네일아트의 트렌드 비교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석임. (2001). 네일리스트를 위한 네일아트. 정문각
- 전유미. (2004). 국내 트렌드 정보산업의 현황 분석.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유리. (2003). 패션 트렌드의 의미구성과 이데올로기: 패션의 색수열리티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폴리 게이린. (1993). 패션 프리젠테이션. 경춘사
- 한국네일협회. (2007). NAILPIA. No. 19-28
- 한국네일협회. (2008). NAILPIA. No. 29-35
- 한국네일협회. (2009). NAILPIA. No. 36-45
- 한국네일협회. (2010). NAILPIA. No. 46-47
- Nystrom. P. (1928). Economics of Fashion. New York: Ronald Press

